

교재 활용법

학업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학생이든지

- 1) 파란문법익힘책(CleanX) PDF를 내려받아 인쇄하거나 기출문제집을 하나 샅니다.
- 2) 기출 문제를 풀며 발생한 문법적 의문을 [노트]에 정리합니다.
- 3) 교재를 공부하며 [노트]의 문법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 4) 이때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을 적극 활용합니다.
- 5)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문법 개념이 공고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됩니다.

국어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 1) 교재 50쪽 '형태론' 부터 91쪽 '통사론' 까지 먼저 일독합니다.
- 2) 다음으로 교재 6쪽 '음운론' 부터 91쪽 '통사론' 까지 한 번에 학습합니다.
- 3) 이때 교재의 [심화] 내용 및 [연습문제] 는 스킵하고 [기본] 내용만 봅니다.
- 4) 마지막으로 교재 6쪽부터 114쪽까지 정독합니다. 연습문제 풀이도 작성합니다.
- 5) 자신이 작성한 연습문제 풀이와 해설의 내용을 비교하여 학습 상황을 확인합니다.
- 6) 틈틈이 4)를 진행하여 일주일 이상 문법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국어문법에 대한 기초가 잡힌 학생은

- 1) 교재 6쪽 '음운론' 부터 91쪽 '통사론' 까지 2회독 후 중세국어로 넘어갑니다.
- 2) 이때 교재의 [심화] 내용 및 '연습문제' 는 스킵하고 [기본] 내용만 봅니다.
- 3) 마지막으로 교재 6쪽부터 114쪽까지 정독합니다. 연습문제 풀이도 작성합니다.
- 4) 자신이 작성한 연습문제 풀이와 해설의 내용을 비교하여 학습 상황을 확인합니다.
- 5) 틈틈이 3)을 진행하여 일주일 이상 문법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국어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 1) 하얀 종이를 한 장 준비합니다.
- 2) 바로 뒷장의 목차를 보며 용어의 뜻과 예시를 하나씩만 작성해봅니다.
- 3) 즉각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독합니다.
- 4) 좀 더 겸허한 자세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틈틈이 일독합니다.

문법 탐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靑雲으로부터 박지성

목차

(음운론) 음운과 음운 체계

– 음운 변동	
–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10 p
비음화	13 p
유음화	14 p
구개음화	17 p
경음화	20 p
반모음화	23 p
– 탈락	
자음군단순화	24 p
ㅎ 탈락	26 p
그 외의 탈락	27 p
– 첨가	
ㄴ 첨가	29 p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31 p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32 p
반모음 첨가	33 p
– 축약	
거센소리되기	34 p
모음 축약	35 p
연습문제	36 p

(형태론) 형태소와 단어

– 단어의 분류	
체언	51 p
관계언	53 p
용언	55 p
수식언	59 p
독립언	61 p
– 단어의 형성	
합성어	62 p
파생어	63 p
연습문제	64 p

(통사론)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짜임

– 문법요소	
피동과 사동	74 p
부정	77 p
시제와 동작상	80 p
높임법	81 p
– 문장성분	
주성분	82 p
부속성분	84 p
독립성분	86 p
– 문장의 짜임	
이어진 문장	87 p
안긴문장	88 p
연습문제	92 p

(국어사) 우리말의 옛 모습

중세국어	100 p
근대국어	105 p
연습문제	108 p

(기타 어문규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113 p

(해설) 정답과 자세한 풀이 115 p

-
파란
문법

음운론



음운과 음운 체계

[기본]

음운 音韻 phoneme

음운은 ㄱ, ㄴ, ㄷ, ㄹ, ㅌ, ㄷ, ㄱ, ㄴ와 같은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감자/는 ‘ㄱ’, ‘ㅌ’, ‘ㅁ’, ‘ㅈ’, ‘ㅌ’라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ㄱ’이 사라지거나(암자), ‘ㄴ’으로 바뀌게 되면(남자) 뜻 또한 변하게 된다.¹⁾

즉, 음운은 **의미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작은 소리**인 것이다. 앞으로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음운이라고 할 것이다.

음운 체계 音韻 體系 system of phonemes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시작부터 도표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물론 제시한다. 그러나 꼭 외워야 하는 것은 몇 가지뿐이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자.

1. 자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ㅂ (ㅍ, ㅃ)	ㄷ (ㅌ, ㅆ)		ㄱ (ㅋ, ㆁ)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이 용어들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배운 것들이다.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암기라고 본다. 특히 **조음 방법 중에 비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비음은 코 ‘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비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의 ‘조음 방법’을 의미한다.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므로 꼭 기억하자. **비음은 ‘방법’이지 ‘위치’가 아니다.**

1) 여기서 **‘자음’과 ‘자음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보통 표기된 글자인 ‘자음자’를 ‘자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둘은 분명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겹받침 ㄹㄱ은 ㄹ과 ㄱ을 나란히 쓴 것으로서 ㄹ과 ㄱ은 각각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된다. 반면 **ㄹㄱ은 ㄱ자 두 개를 나란히 쓴 것 이지만 음운으로서는 ㄱ 전체가 하나로 인정된다.** 시험에서 자주 묻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자.

2. 단모음

	전후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저			
고모음		ㅣ (ɥ)	ㅡ (ɯ)
중모음		ㅐ (ɛ)	ㅑ (ɔ)
저모음		ㅓ	ㅕ

※ 입의 앞은 입술 쪽, 뒤는 목구멍 쪽을 의미한다.

※ 괄호 안의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하여 조음하는 원순모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으~’ 하고 소리를 내다가 입술만 둥글게 오므려 보라. ‘우~’ 소리가 날 것이다.

우리말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존재한다. 단모음은 이중모음과 대비되는 말로서 발음할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이, 이’, ‘아, 아, 아,’ 하고 발음해보라. 턱과 혀와 입술이 각 모음을 발음할 때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ɥ, ɯ의 경우 단모음으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ɥ와 ɯ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각각 웨[we]와 위[wi]로 발음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고 싶다면 각각 모음 ㅐ와 ㅣ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술만 둥글게 오므려보라.

이중모음은 위의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한 것이다. 반모음에는 w와 y²⁾가 있다. w가 결합한 이중모음은 ㅜ, ㅠ, ㅟ, ㅞ가 있다. y가 결합한 이중모음은 ㅟ, ㅠ, ㅞ, ㅟ, ㅞ, ㅟ가 있다.

3. 반모음

우리말에 반모음은 2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설명한 w와 y(j)이다. 그동안 학교 문법에서 반모음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모음이 자음이나 모음과 대등한 음운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2015개정 문법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공 문법 서적에서는 반모음을 모음이나 자음과 대등한 하나의 음운으로 다루고 있으며, 평가원 공식 인증 수험서인 수능 특강에서도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치러진 평가원 주관 교원임용고사와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반모음을 자음과 단모음과 대등한 하나의 음운으로 전제하고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따라서 반모음도 단모음이나 자음과 대등한 음운으로 간주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화]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조음기관의 사용 방법에 있다. 자음은 기본적으로 폐에서 올라오는 기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어디를 막더라도 막아서(주로 혀로 막는다) 공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를 좁혀 소리를 만든다. 그래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기류가 장애를 겪는 위치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음은 기류가 별다른 장애를 겪지 않는다. 모음은 성대를 떨면서 구강을 소리통으로 활용하여 왕왕 울리는 것이다. 다만 혀의 높낮이와 앞뒤, 입모양 등으로 울리는 방식을 달리할 뿐이다. 가장 입을 작게 벌리고 혀도 높이 울리는 모음 ㅣ나 ㅡ의 경우에도 발음을 해보면 폐에서 기류가 별다른 장애 없이 솔솔 흘러나옴을 알 수 있다.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쯤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모음 ㅣ와 반모음 y를 비교해보면 y는 혀가 ㅣ보다 더 올라가 거의 경구개 근처까지 접근한다. 그렇다고 혀가 경구개에 닿는 것은 아니다. 닿아서 공기를 막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음의 조음위치가 되는 것이다.

2) j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음성기호로는 j가 맞으나 영미권 알파벳에 익숙한 우리네 현실을 고려하여 y로 표기하였다. jordan이 문화권에 따라 요르단 또는 조단으로 발음되는 것을 안다면 j가 y를 의미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음운 변동 音韻變動

음운 변동은 음운이 바뀌는 현상을 총칭하는 말이다. 음운이 변동하는 케이스는 총 4가지가 있다. 물론 이 4종의 변동이 동시에 둘 이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두 변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체 현상이 연달아 두 번 일어나기도 하고 첨가 후 교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독자들은 이러한 **복합 연쇄 변동을 주의**하기 바란다. 시험에서는 주로 단어의 /본디형태/(기저형)와 [발음](표현형)을 제시해주고서는 해당 단어가 어떤 변동을 겪었는지 묻는데, 이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변동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음운 변동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1. **교체** : 원래 음운에서 다른 음운으로 1:1 교환되는 경우 ($a \rightarrow b$)

/떡지마/ → [떡찌마]
/ㄹ ㅌ ㅈ ㅁ | ㅁ ㅌ / → [ㄹ ㅌ ㅈ ㅁ | ㅁ ㅌ]

2. **탈락** : 있었던 음운이 탈락하여 없어지는 경우 ($a \rightarrow \emptyset$)

/닭/ → [닥]
/ㄷ ㅌ ㅁ ㅈ / → [ㄷ ㅌ ㅁ]

3. **첨가** : 없었던 음운이 새롭게 첨가되는 경우 ($\emptyset \rightarrow a$)

/한여름/ → [한녀름]
/ㅎ ㅌ ㄴ ㄷ ㄹ ㅁ / → [ㅎ ㅌ ㄴ ㄷ ㄹ ㅁ]

(※ /한여름/의 'ㅇ'은 글자(자음자)이기는 하나 초성 자리에 음운이 없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판에 불과하므로 음운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응/ = /ㅣ ㄴ ㅇ /)

4. **축약** : 두 음운이 새로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경우 ($a+b \rightarrow c$)

/국화/ → [구과]
/ㄱ ㅌ ㅍ ㅁ ㅈ ㅌ ㅁ / → [ㄱ ㅌ ㅍ ㅁ]

이 네 가지의 케이스로 거의 모든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의 발음을 보고 그 단어가 겪은 음운 변동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는 것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다.

○ 음운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은 기본적으로 소리의 단위이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마치 인쇄된 낱자를 음운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쇄된 글자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반짝이는 유리’라고 할 때의 ‘유리’를 살펴보자. 유리는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다섯 개라고 답한 친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정말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한 ‘없음 표시’이다. 음운과 음성의 차이는 무엇이나? 음성은 실제 인간이 조음기관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물리적 진동 및 음파이고 음운은 그것을 인간이 듣고 추상화하여 인식한 관념적 개념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조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다. 이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발음해보라 하면 각 사람들 수만권의 서로 다른 ‘음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글쓴이의 [kəjinmal]과 아시아 최고의 아티스트, 존경하는 G.D의 [gəjinmal]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국제음성기호로 바꾸어 기록해보니 정말 그러하다!) 그러나 그 누구의 ‘음성’ 일지라도, 정확히 발음만 해주면 (한국인이거나) 누구나 같은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 글쓴이의 [kəjinmal]이나 G.D의 [gəjinmal]이나 어쨌든 사람들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들은 같은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음운 체계라는 것은 각 언어마다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개라고 답한 친구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yuri]라고 소리가 나니까 반모음까지 하나의 음운으로 쳐서 총 네 개의 음운으로 분석했을 것이다. 성격이 아주 분석적인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글쓴이와 아주 유사한 문법관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욕은 아니다. 글쓴이도 4개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국어의 음장(소리의 길고 짧음)도 음운에 포함이 되는데(비분절 음운³⁾) 독립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어찌 어엿한 음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대학 음운론 교재에서 반모음을 음운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수능특강에서도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15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역대 국어과 교과서에는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과거의 교과서에는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신을 꼼꼼히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 선생님의 관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3) 음운을 음소와 운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음소는 분절 음운, 운소는 비분절 음운을 의미한다. 분절 음운이란 자음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음운이고, 비분절 음운은 국어의 장단음처럼 뜻을 구분하게 하지만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음운을 말한다.

4)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 안의 대중.

[기본]

교체 交替

음운 교체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비음화
3. 유음화
4. 구개음화
5. 경음화 (된소리되기)
6. 반모음화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표음화, 평파열음화)

초성
중성
종성

하나의 음절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초성
중성
종성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물/은 초성이 ㅁ, 중성이 ㄴ, 종성이 ㄹ인 것이다. 초성과 달리 종성 자리에서는 아무 자음이나 소리 날 수 없다⁵⁾. 대표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음 7개만이 소리 날 수 있다.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 대표 선수 11명만이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자. 나머지 자음들은 표기상으로는 쓰일 수 있어도 실제 발음 시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실제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음운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음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ㄱ - 부엌[부억], 창밖[창박] : ㅋ, ㆁ → ㄱ

ㄴ

ㄷ - 갓[갓], 갓[갓], 갓[갓], 갓[갓], 갓[갓] : ㅅ, ㅆ, ㅈ, ㅊ, ㅌ → ㄷ

ㄹ

ㅁ

ㅂ - 잎[입] : ㅍ → ㅂ

ㅇ

음절의 끝이라는 제약 때문에 어떤 음운이 ㄴ, ㄹ, ㅁ, ㅇ으로 교체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음운이 ㄴ, ㅁ, ㅇ으로 교체되었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비음화에 의한 교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음운이 ㄹ로 교체되는 경우는 추후에 다룰 유음화뿐이다. 결과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ㄱ, ㄷ, ㅂ 세 자음으로의 교체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끔, 어떤 참고서들은 추후에 다룰 탈락 현상 중 하나인 자음군단순화 현상까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넣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다루는 문법 서적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루지 않아왔고 두 용어를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5) 물론 초성에도 제약이 있다. 현대 국어에서 소리가 있는 ㅇ[ŋ]은 초성에 올 수 없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현대국어 초성의 ㅇ은 모두 소리값이 없는 ㅇ[∅]으로 간주하면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적 조건이다. 사람이 변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음운이 교체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 1. 단독으로 쓰이거나 단어의 끝에 쓰일 때 : 맛 → [만]
ㅅ → ㅆ

환경 2.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 맛갈스럽다 → [만갈스럽따]
ㅅ → ㅆ

환경 3.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 맛없다 → [마뎃따]
ㅅ → ㅆ

환경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발음을 보고 교체 현상이 일어났음을 인지할 수만 있으면 된다. 특히 맛없다[마뎃따]의 경우 ①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겪고 ②연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이는 ‘없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⁶⁾.

만약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문법적인) 형태소들, 이를테면 조사와 같은 것과 결합한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음이 될 따름이다. ‘맛’ 뒤에 ‘이’, ‘을’, ‘에’를 결합해보면 각각 [마시], [마술], [마세]로 발음이 되고,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지 않고 연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놀랍게도 ‘맛있다’는 [마뎃따]로도, [마싣따]로도 발음이 된다. 복수표준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칙은 [마뎃따]가 원칙이다. 언중들이 [마싣따]로 발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추가로 인정된 예외적 발음이다. ‘멋있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심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표준 발음법]⁷⁾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읔[키윅]	키읔과[키윅파]	옷[읏]
웃다[읏: 따]	있다[읏따]	젓[젇]	빳다[빏따]
꽃[꼇]	쫓다[쫏따]	숯[숏]	뵤다[뵏: 따]
얏[압]	뵤다[뵏따]		

○ 음절의 끝에서 ㅎ은 어떻게 소리 날까?

표준 발음법에서는 대표음과 관련된 제9항에서 ㅎ을 설명하지 않고 제12항을 별도로 만들어 받침 ‘ㅎ’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문법을 배우면서 점차 알게 되겠지만 ㅎ은 워낙 다양한 변동을 겪는 받침이므로 학자들도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ㅎ이 음절 끝에서 어떤 대표음으로 교체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제12항에서는 이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아마 끝소리를 설명하려고 하니 ‘ㅎ’으로 끝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서는 ‘히읏’ 뿐이고 이마저도 표준발음이 ‘히읏이[히으시]’로 나므로 실질적인 기저형은 /히읏/이라고 보여, 제대로 된 용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만 제18항 비음화와 관련된 조항을 통해 받침 ㅎ이 어떤 대표음으로 교체되는지 간접적으로는 제시하고 있다. 교재 15쪽 표준발음법 제18항을 보면 비음 ㄴ이나 ㅁ 앞에서 대표음 ㄱ, ㄷ, ㅂ이 각각 ㅇ, ㄴ, ㅁ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는 받침 자음들의 목록에 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ㅎ은 ㄴ이나 ㅁ 앞에서 ㄷ으로 먼저 교체되고, 이후 비음화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놓치다/의 표준발음은 [놓치다]인데, 자음 ㅈ 앞에서 ㅎ이 ㄷ으로 교체를 겪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ㅎ도 몇몇 자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하 모든 [표준 발음법]에 관한 자료는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것을 참조하였음.

[기본]

2. 비음화

우리가 보통 OO화라고 하면 OO이 아닌 어떤 것이 OO이 될 때 OO화라고 한다. 즉,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우리말의 비음은 ㄴ, ㅁ, ㅇ이니 없었던 ㄴ, ㅁ, ㅇ이 나타나면 일단 비음화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비음이 무엇인지 되짚어보자. 비음은 조음방법일까 조음위치일까? 비음은 조음방법이라고 앞서 언급하였다. 조음위치는 쉽게 말하면 혀가 닿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⁸⁾ 독자들은 코에 혀가 닿는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즉 코는 조음 위치가 될 수 없는 기관이다. 비음은 비강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비강을 이용한다는 것은 목젖을 내려 구강으로 가는 공기의 길을 막고 폐에서 올라오는 기류를 비강으로 밀어 넣어 한껏 울리게 한 후 콧구멍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결국 비음화라는 것은 조음위치는 그대로 두고(양순, 치조, 연구개) 조음방법만 비음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보자.

교체 전 교체 후

① ㄷ → ㄴ : 걷는다 → [긴는다] 끝말 → [끈말]⁹⁾

치조 파열음 치조 비음

② ㅂ → ㅁ : 겹눈 → [검눈] 입문반 → [임문반]

양순 파열음 양순 비음

③ ㄱ → ㅇ : 먹는다 → [멍는다] 목마른 → [몽마른]

연구개 파열음 연구개 비음

교체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 따위의 조음위치는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음방법은 모두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교체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화의 조건은 **파열음(ㄱ, ㄷ, ㅂ) 뒤에 비음(ㄴ, ㅁ)이 결합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의 ‘걷는다’를 살펴보면 ‘걷는[긴는]’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만(ㄷ + ㄴ → ㄴ + ㄴ) ‘는다’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ㄴ + ㄷ). 이는 ‘입문반’도 마찬가지이며 ‘먹는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음이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8) ㅎ은 제외. ㅎ은 모든 자음 중 가장 특별하다.

9) /끝말/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말 → (비음화) [끈말]

(유음의) 비음화

같은 비음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변화 원인과 양상이 전혀 다른 비음화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유음의 비음화 현상인데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가면 큰 문제는 없다.

이 현상은 본질적으로 **ㄹ**이 가진 특성에 기인한다. **ㄹ**은 본디 성격이 예민한 자음이라 자기 앞에 다른 자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뒤에 오는 것도 문제가 됨)¹⁰⁾ 즉, **ㄹ**이 초성일 때, 그 앞에 **ㄹ** 이외의 받침이 나타나는 경우 **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눈 뜨고 볼 수 없다면?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자신이 교체되든지, 상대를 교체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ㄹ**은 성질만 고약할 뿐 힘은 약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ㄹ**은 **ㄴ**으로 교체된다. (**ㄴ**이 **ㄹ**과 조음 위치도 같고, 같은 울림소리라서 선택되는 것 같다) 다음의 양상을 살펴보자.

ㄹ ⊖ **ㄴ**
역류 ⊖ 역뉴 → [영뉴]
감리 ⊖ [감니]
입론 ⊖ 입논 → [임논]
정리 ⊖ [정니]

위에서 ⊖에 해당하는 교체 현상이 바로 유음의 비음화 현상이다. 앞에 **ㄴ**, **ㄹ** 이외의 자음이 나타나면 **ㄹ**은 즉각 **ㄴ**으로 교체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유음화

위에서 말한 것처럼 **ㄹ**은 아주 특별한 자음이다. 이 **ㄹ**을 유일하게 대접해주는 자음이 **ㄴ**이다. **ㄴ**은 **ㄹ**과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방법만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같은 울림소리라는 점에서 서로 가장 가까운 자음이다. 그래서 성질 더러운 **ㄹ**을 위해 **ㄴ**이 **ㄹ**로 교체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유음의 비음화를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ㄹ**이 교체를 겪는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경우가 바로 **ㄴ**을 만나서 **ㄴ**이 **ㄹ**로 교체되고 **ㄹ**은 멀쩡히 발음되는 지금 이 상황을 뜻한다.

ㄴ **ㄹ** → **ㄹ** **ㄹ** **ㄹ** **ㄴ** → **ㄹ** **ㄹ**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모두 **ㄹ**로 교체된다.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ㄹ**과 **ㄴ**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음화는 앞의 유음의 비음화와 세트로 묶어 이해하는 것이 좋다.

10) **ㄹ**의 뒤에 **ㄴ**, **ㅅ**, **ㅆ**과 같은 자음이 초성으로 오면 바늘+질 → /바느질/처럼 **ㄹ**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ㄹ**탈락은 용언의 활용이나 복합어의 형성과정에서 모두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탈락 단원에서 학습하도록 하자.

[심화]

○ 비음화, 유음화 관련 [표준 발음법]

(편집자 주: 제18항은 비음화, 제19항은 유음의 비음화, 제20항은 유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ㄷ, ㄸ, ㅌ,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움만[키움만]
뭇뭇이[몽목씨]	굽는[궁는]	흙만[홍만]	닫는[단는]
짓는[진 : 는]	웃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죤는]	꽃망울[꼰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 : 는]	옴는[음는]	없는[엄 : 는]	값매다[감매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홍말리다]	옷 맞추다[온맞추다]
밥 먹는다[밤명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¹¹⁾

답력[담 : 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항로[항 : 노]
대통령[대 : 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¹²⁾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녁]
십리[십니→십니]		

11) 어떤 책에서는 유음의 비음화를 (자음)동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음의 비음화를 규정한 표준 발음법 제19항이 ‘제5장 음의 동화’ 파트에 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상 음의 동화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화 현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붙임]에 나타난 파열음 뒤에서 ㄹ이 비음화되는 사례들은 도저히 동화라고 보기 어렵다. ㄱ이나 ㅂ의 어떤 점을 닮아갔기에 ㄹ이 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음운론 관련 서적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부분은 표준 발음법 체계상의 문제로 보여진다. 따라서 수능에서 이를 동화냐 아니냐로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될 수가 없다.

12) ㄹ 앞에 ㄱ이나 ㅂ이 올 경우, ㄹ의 비음화가 파열음의 비음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한 부분이다. 시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유의하자.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1)	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팔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달른]	뚫는[뚫른]	훤네[할레]
--------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¹³⁾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월론[이 : 월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¹⁴⁾

감기[감 : 기] (×[강 : 기])	옷감[온감] (×[옥감])
있고[일꼬] (×[익꼬])	꽃길[꼇길] (×[꼭길])
젓먹이[전머기] (×[점머기])	문법[문뵤] (×[뵤뵤])
꽃밭[꼇뵤] (×[꼭뵤])	

위 규정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단어와 그 발음을 보였을 때, 위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입원료[이뵤노]’에서 ㄹ이 ㄴ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제19항(유음의 비음화)에 의한 교체인지 제20항(유음화)의 예외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음의 비음화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규칙적 성격을 띠지만(배열의 제약) 제20항 유음화의 예외 현상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현상으로 음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13) 유음화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잘 살펴보면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만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4) 잘 살펴보면 제21항의 예시들은 조음위치까지 동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구개음화를 제외하면, 조음위치를 바꾸는 교체는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러한 발음은 음운의 성격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없고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어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

4. 구개음화

구개음은 조음위치를 이르는 말이다. 단단한 윗니를 지나 매끈한 윗잇몸을 넘어가면, 뜨거운 라면을 급하게 먹었을 때 홀랑 벗겨지는 그 부위가 나타난다. 마치 미술 시간에 쓰는 팔레트와 같은 그 부위, 경구개이다. 여기서 소리 나는 음이 **ㅈ, ㅊ, ㅉ**이다.¹⁵⁾

구개음화는 비음화나 유음화와 달리 조음위치로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는 구개음화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이 조음위치의 변화에 있다는 뜻이다. 즉 비음화나 유음화는 조음위치는 그대로 두고 조음방법이 변화하는 것인데 반해 구개음화는 조음위치가 변화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 구개음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 | | |
|----------------------------|------------|---|
| 교체 전 | 교체 후 | |
| ① ㄷ | → ㅈ | : 말이 → [마 지] 가을걷이 → [가을 거지]
치조 파열음 경구개 파찰음 |
| ② ㅌ | → ㅊ | : 같이 → [가 치] 쇠붙이 → [쇠부 치]
치조 파열음 경구개 파찰음 |
| ② ₋₁ ㄷ+ㅎ | → ㅉ | : 받히다 ¹⁶⁾ → 바 티 다 → [바 치 다]
경구개 파찰음 |

먼저, 교체 전과 후를 살펴보면 치조음이 구개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개음화라고 명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개음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①, ②의 사례를 잘 살펴보면 발음들이 모두 [지], [치] 등으로 구개음과 |모음이 연달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개음화는 앞말이 **ㄷ**이나 **ㅌ**으로 끝나고 뒤에 '이'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②₋₁의 경우 앞말이 **ㄷ**으로 끝났고 뒤에 '-히-'가 결합하였다. 이 경우 먼저 **ㄷ**이 **ㅎ**과 축약되어 **ㅌ**이 되고, 뒤이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시험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ㄷ**이나 **ㅌ**은 |모음만 만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다음을 살펴보자

- ㉠ **걸**읻**** [건**닙**] ㉡ **받**일**** [반**닐**] ㉢ **느**티**나무** [느**티**나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과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ㅌ** 뒤에 결합한 형태소가 '읻'이나 '일'과 같은 실질형태소¹⁷⁾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 ㉢에서 결합한 '-이'는 모두 형식형태소이다. ㉢의 경우 아예 형태소 결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느티'가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결합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종합하면, 구개음화는 **앞말이 ㄷ이나 ㅌ으로 끝나고 뒤에 형식형태소 '이', 또는 '히'가 결합할 때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15) 쓸데없는 지식이지만 구개를 뜻하는 영어가 palate, 구개음을 뜻하는 영어가 palatal이다. 미술 도구 팔레트는 palette.

16) 받히다 : 떠받음을 당하다(받다의 피동사). ㉠ 소에게 받히다.

17) 형태소의 뜻과 종류는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 통시적 구개음화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

역사적으로 음운이 바뀌어, 지금은 구개음화된 형태로 인식하는 단어들에 꽤 있다. 다음은 「속미인곡」의 처음 부분이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느고

이 작품을 현대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느고?

중세의 ‘더’는 구개음화를 겪어 현대의 ‘지’가 되었다. ‘턴’도 ‘천’이 되었다. 오늘날의 구개음화와 비교해보면 형식형태소와의 결합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세에 ‘디, 더, 티, 터’였던 것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모두 변하여 오늘날 ‘지, 저, 치, 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 왜 근대국어 시기가 되어서야 통시적 구개음화가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세국어에는 ‘구개음’이 없었다(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 설음 ㄷ, ㅌ이 ‘구개음’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구개음’ 자체가 자음체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 가는 더 각시’로 발음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ㅅ, ㅆ은 ㅅ과 함께 치음이었다. 이들 ㅅ, ㅆ이 치음에서 구개음으로 옮겨 발음되는 자음체계의 변화는 근대국어 시기에야 나타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개음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느티나무, 잔디, 어디 등은 왜 아직도 구개음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일까? 이들은 분명 중세에도 존재했던 단어들인데 어찌 옛 모습 그대로 ㄷ, ㅌ이 살아있는 것일까?

이들이 근대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광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구개음화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개음화의 조건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모음 앞에 ㄷ, ㅌ이 오는 것이다. 바로 이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세국어 시기에 이들은 각각 ‘느티’, ‘잔디’, ‘어디’로서 |모음이 아닌 ㄴ|모음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중세국어 자료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본]

5. 경음화 (된소리되기)

경음화는 다른 음운 변동과 달리 인식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표기에 없던 쌍자음이 발음에서 나타나면 거의 경음화라고 보면 된다. 대표음화나 비음화만 해도 뒤이어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변화의 흔적이 덮이는데, 경음화의 결과물인 ㅈ, ㅊ, ㅊ, ㅆ, ㅆ는 더 이상 변동을 겪지 않는다. 예를 살펴보자.

① 북극 → [북ㅈㅅ] 멧쟁이 → [멧ㅈ쟁이] 급소 → [급ㅈ소] 입범 → [입ㅈ뱀] 입대 → [입ㅈ대]
 ㄱㄱ → ㄱㅈ (ㅅ → ㅅ) ㄷ → ㄷㅈ ㅂㅅ → ㅂㅈ ㅂㅈ → ㅂㅈ ㅂㅈ → ㅂㅈ

①₋₁ 읽고 → [일ㅈ꼬]
 리 → ㄹㅈ

①₋₂ 넓고 → [널ㅈ꼬] 뽕지 → [뽕ㅈ지] 훤다 → [할ㅈ따] 훤소 → [훤ㅈ소]
 ㄹ → ㄹㅈ ㅍ → ㅍㅈ

② (사위로) 삼다 → [삼ㅈ따] (아기를 품에) 안다 → [안ㅈ따]
 (빨래를) 삶다 → [삼ㅈ따] (자리에) 앉다 → [안ㅈ따]

보통 경음화라고 하면 ①을 의미한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오는 초성 ㄱ, ㄷ, ㅂ, ㅅ, ㅈ이 각각 ㅈ, ㅊ, ㅊ, ㅆ, ㅆ로 교체되는 것인데 워낙 쉽고 직관적인 것이어서 중학교 때 배운 것이지만 잘 기억날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①₋₁과 같이 살짝 헷갈리는 사례를 출제한다. 읽고[일ㅈ꼬]는 자칫 축약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ㅈ의 모양이 ㄱ과 ㄱ이 축약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이다. 축약을 통한 경음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교체다. 여기서는 ‘읽고’의 받침 ㄱ이 탈락하고 ‘-고’는 [-ㅈ꼬]로 교체된다.²⁰⁾

①₋₂에서는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 뒤에서의 경음화에 대해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ㄹ이 살아남고 나머지 자음이 탈락하고 있는데, 이 탈락하는 자음 ㅂ, ㅌ이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교체시키는 원인이 된다.

②에서는 용언 어간이 ㄴ(ㄴㅅ)이나 ㅁ(ㅁㅁ)으로 끝나는 경우 뒤에 오는 어미를 된소리로 교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명사와 같은 체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아주 신비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간과 쓸개’라고 할 때 [간과]라고 하지 [간ㅈ파]라고 하는 하지 않는다. ‘얹과 깨달음’도 [얹과] 깨달음이지 [얹ㅈ파]라고 하지는 않는다.²¹⁾ 된소리되기 중에는 이렇게 음운론적 조건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용언인지 아닌지 등 개별 어휘의 성격을 고려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

20) 겹받침 ㄹㄱ으로 끝난 용언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받침 ㄱ을 탈락시키고 어미의 ㄱ을 된소리로 교체하여 발음한다. 읽고[일ㅈ꼬], 읽게[일ㅈ께], 읽기[일ㅈ끼], 맑고[말ㅈ꼬], 맑게[말ㅈ께]

21) ‘얹’은 용언 어간이었던 어근 ‘얹-’에 명사화 접미사 ‘-ㅁ’이 결합한 명사이다.

심화

○ 경음화 관련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ㄷ,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뽕]	깎다[깍따]	넋받이[넋빠지]
샷돈[샷뽕]	닭장[닭짱]	침범[침뽕]
뽕대다[뽕때다]	웃고름[웃꼬름]	있던[있뽕]
꽃고[꽃꼬]	꽃다발[꽃따발]	낮설다[낮썰다]
밭갈이[밭까리]	솔전[솔쩐]	곱돌[곱뽕]
똥개[똥깨]	옆집[옆쩍]	넓죽하다[넙쭈카다]
웁조리다[웁쪼리다]	값지다[갑찌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 : 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²²⁾	엎다[언따]
삼고[삼 : 꼬]	더듬지[더듬찌]	닭고[담 : 꼬]	젊지[젊 : 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²³⁾

안기다	감기다	굽기다	웁기다
-----	-----	-----	-----

제25항 어간 받침 ‘ㅌ,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²⁴⁾

넓게[넙께]	할다[할따]	훈소[훈쏘]	뺨지[뺨 : 찌]
--------	--------	--------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뽕]	발동[발뽕]	절도[절뜨]
말살[말쌀]	불소[불쏘] (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쭙]	물질[물쩍]	발전[발쩐]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췌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 (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 (切切-)
-------------------	-------------------

22) 편집자 주: 국립국어원은 ‘앉고[안꼬]’의 구체적인 음운 변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안스다 → 안다다 → 안따따 → [안따]〉 즉, 겹받침 ㄴㅌ 뒤의 경음화는 그 본질적 원인이 받침 ㄴ 뒤의 경음화와 다르지만 최종적인 표현형에서 어간 받침-ㄴ과 경음화된 어미가 나타난다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같은 항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23) 편집자 주: ‘안기다’의 어간은 ‘안기-’까지이므로 제24항의 경음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뒤에 결합한 ‘-기-’는 어미가 아니라 접미사이다.

24) 편집자 주: 국립국어원은 ‘할다[할따]’의 구체적인 음운 변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할뜨다 → (음절의 끝소리규칙) 할따다 → (경음화) 할따따 → (자음군 단순화) [할따]〉

제27항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찌께]	갈 곳[갈꼇]
할 도리[할뜨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꺼]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써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재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 : 속]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꺼]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빠]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등-불[등뽕]	창-살[창쌀]
강-줄기[강쑤기]		

○ 제28항 사이시옷 현상에 의한 경음화

제28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알려진 경음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이시옷 현상은 그 원인이 불명확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불’과 ‘고기’가 만나면 [불고기]가 되지만 ‘물’과 ‘고기’가 결합하면 [물고기]가 된다. 같은 명사이고 같은 ㄱ로 끝이 났는데 왜 ‘불’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지 못하고 ‘물’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는지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없다. 심지어 ‘민물고기[민물꼬기]’ ↔ ‘민물송어[민물송어]’와 같이 의미적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현상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중세 때 부정물의 관형격 조사를 ㅅ으로 표기했다는 것, ㅅ의 경우 초성에 내려 쓸 수 있었다는 전통을 고려하면 중세에는 ‘물ㅅ고기’(물의 고기) 또는 ‘물ㅅ기’였던 것이 오늘날은 어법에 맞게 쓰다 보니 물고기[물꼬기]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와 같은 교체 현상은 그 구체적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게 된다. 단순 교체라고 한다면 설명은 간단해진다. 물고기[물꼬기]의 경우 ㄱ이 ㅅ으로 교체, 끝이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보자면, 물 ㅅ 고기 → 물 ㄷ 고기 → 물 ㄷ 꼬기 → [물ㅅ꼬기]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수능에서 이러한 사례의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묻지는 않는다(그래서 주로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출제한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고기[물꼬기]에서 된소리로의 교체가 나타나고 있으나 ①그 원인이 일반적인 경음화와 다르고 ②그것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현상은 뒤에 다룰 ‘음운 첨가’와도 관련이 있으니 그때 제대로 살펴보자.

[기본]

5. 반모음화 (or (구)모음 축약)

반모음화란 단모음 ‘ㅣ’나 ‘ㄴ/ㄷ’가 각각 반모음 y(j)와 w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반모음은 우리말의 다른 음운과 달리 독립된 표기 기호가 없다. 예를 들어 “지우야, 피카추와 함께 가자!”라는 문장에서 ‘야/ya/’와 ‘와/wa/’는 각각 반모음 y(j)와 w가 있음이 분명한데, 이 y(j)와 w를 표기하는 독립된 한글 기호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된 한글 기호가 없기 때문에 반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 문제는 겉으로 보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경우보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① 오-아라 → 와라 두-어라 → 뒤라 보-아요 → 봐요
o-ara → wara tu-əra → twəra po-ayo → pwayo

② 버티-어 → 버티 다니-어 → 다녀
pəti-ə → pətyə tani-ə → tanyə

①은 단모음 ㅏ 또는 ㅓ로 끝나는 어간 뒤에 ㅓ 또는 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ㅓ 또는 ㅓ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ㅏ/ㅓ로 끝난 어간 뒤에 ㅓ/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한 음절로 줄어들면 단모음 ㅏ/ㅓ는 반모음 w로 교체된다.

②는 단모음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 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ㅓ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단모음 ㅣ는 반모음 y(j)로 교체된다. (단모음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사례만 제시하였다.)

①과 ②는 모두 음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모음은 그 자체로는 음절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모음은 다른 단모음에 붙어 이중 모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중 모음이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두어라’, ‘보아요’와 같이 음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자. 교체로서의 반모음화는 ㅏ/ㅓ 또는 ㅣ로 끝나는 어간과 ㅓ/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 음절이 줄어들어야만 나타난다.

그런데 음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 ②의 앞부분과 같이 ㅏ/ㅓ로 어간이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은 발음될 때 첨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버티-어’의 경우 음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쓰면 ‘버티어’가 되는데 ‘버티어’의 표준 발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버티어](원칙)이고 또 하나는 [버티여](허용)이다. [버티어]는 아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버티여]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난 발음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첨가 파트의 ‘반모음 첨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참고 ※ ①과 ②에서 나타나는 반모음화 현상을 구 교육과정(09개정 이하)에서는 모음축약으로도 불려왔다. 반모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형태상으로 음절이 줄어드는 것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많은 문법가들이 꾸준히 비판을 가한 결과,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모음축약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모음의 음운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서술로 끝나고 있어, 내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모음화에 대한 담당 선생님의 견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

탈락 脫落

음운 탈락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자음군 단순화 2. ㅎ 탈락 3. ㄹ 탈락 4. ㅡ 탈락 5. ㅏ/ㅓ 탈락 6. 반모음 탈락

1. 자음군²⁵⁾ 단순화

오늘날 우리말에서는 초성에서든 종성에서든 두 개 이상의 자음(자음군)이 연속적으로 소리 날 수 없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상으로는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발음 과정에서 **탈락**(단순화)하게 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① 뭉 → [묵] 샅 → [삭]
 ㄱㅅ → ㄱ ㄱㅅ → ㄱ

② 앓다 → [안따] 앓는 → [안는]
 ㄴㅅ → ㄴ ㄴㅅ → ㄴ

③ 닭 → [닥] 발다 → [박따]
 ㄷㄱ → ㄱ ㄷㄱ → ㄱ
 앞 → [암] 삶다 → [삼따]
 ㄷㅁ → ㅁ ㄷㅁ → ㅁ

주의²⁷⁾ 발게 → [발께] 발고 → [발꼬]
 ㄹㄱ → ㄹ ㄹㄱ → ㄹ

여덟 → [여덜] 뉘다 → [닐따]
 ㄹㅈ → ㄹ ㄹㅈ → ㄹ

주의²⁸⁾ 뉘적하다 → [넙쩌카다]
 ㄹㅈ → ㅈ

외곶 → [외곶]
 ㄹㅅ → ㄹ

활다 → [할따] 앓는 → [알른]
 ㄹㅅ → ㄹ ㄹㅅ → ㄹ

읷다 → [읍따]
 ㅍㅇ → ㅍ²⁹⁾

④ 값 → [갑] 없다 → [업따]
 ㅂㅅ → ㅂ ㅂㅅ → ㅂ

25) 群 : 무리 [군]. 따라서 자음군은 자음들의 떼.

26) 반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초성에서 자음군이 발음될 수 있었다. ex) '뻬, 뻬'

27) 용언의 어간이 ㄹㄱ으로 끝나는 경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끝의 ㄱ이 탈락한다.

28) 용언 '뉘-다'의 경우, '뉘-'을 어근으로 하는 일부 복합어에서 예외적으로 어간 말의 ㄱ이 탈락한다.

29) ㅍ이 ㅂ으로 교체를 겪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심화

○ 자음군단순화 관련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안다[안따]	여덟[여덜] ³⁰⁾
넋다[넉따]	외곶[외곶]	핥다[핥따]	값[갑]
없다[업 : 따]			

다만, ‘뺨-’은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넉]으로 발음한다.

(1)	뺨다[뺨 : 따]	뺨소[뺨 : 쏘]	뺨지[뺨 : 찌]
	뺨는[뺨 : 는 → 뺨 : 는]	뺨게[뺨 : 께]	뺨고[뺨 : 꼬]
(2)	넋-죽하다[넉쭈카다]		넋-둥글다[넉똥글다]

제11항 겹받침 ‘ㄹ’, ‘ㅂ’,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과]	막다[막따]	늪지[늑찌]
삶[삼 :]	젊다[점 : 따]	옴고[옴꼬]	옴다[옴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깨]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	--------	----------

○ 용언 ‘넋다[넉따]’와 관련된 예외적 발음

표준발음법에서 제시한 단어인 넋죽하다[넉쭈카다], 넋둥글다[넉똥글다] 외에도 예외적인 발음이 더 있다.

넋죽넋죽[넉쭈넉쭈], 넋적하다[넉쩌카다], 넋적넋적 ³¹⁾ [넉쩍넉쩍], 넋죽이[넉쭈기] 넋다듬이[넉따드미], 넋미역[넉미역], 넋뺨죽하다[넉뺨쭈카다], 넋살문[넉쌀문]
--

위 사례들은 ‘넋-’ 뒤에 ㅅ, ㄷ, ㅁ, ㅂ, ㅍ으로 시작하는 말이 합쳐서 어간을 이루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 ㅂ 중 ㉡이 탈락하고 ㅂ이 남는 사례들이다. 반면에 어간 ‘넋-’에 ㅅ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각각 넋지 [넉찌], 넋디넋다[넉띠넉따]로 ㉢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여덟/은 [여덜]로 소리가 나는데, 이로 인해 뒤에 조사 /과/나 /도/와 결합하더라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각각 [여덜과]와 [여덜도]로 발음된다. 표준발음법 제2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ㄹㅂ겹받침 뒤의 경음화 조건은 ‘ㄹㅂ’이 ‘ㅂ’으로 소리 나는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어 ‘ㄹ’로 소리 나는 ‘여덜’은 제외된다. 다만, 제25항의 /핥다/가 [핥따]로 소리 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음군 단순화 이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했었는데, 이를 그대로 /여덜도/에 적용하면 [여덜또]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 25항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여덜도’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환경이므로 형태론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즉,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등 음운 규칙은 그 적용 순서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1) 여럿이 다 넋적한 모양. ex) 떡을 넋적넋적 자르다.

[기본]

2. ㅎ 탈락

용언 어간 끝의 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예외 없이 탈락한다. 이는 어간의 끝이 겹받침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① 좋으면 → [조으면] 달아서 → [다아서]
 ㉠ → ∅ ㉠ → ∅
- ② 알으면 → [아느면] 만아서 → [마나서] 싫으면 → [시르면]
 ㄴ㉠ → ㄴ∅ ㄴ㉠ → ㄴ∅ ㄹ㉠ → ㄹ∅
- ③ 놓이다 → [노이다] 많이 → [마니] 꾸이다 → [끄리다]
 ㉠ → ∅ ㄴ㉠ → ㄴ∅ ㄹ㉠ → ㄹ∅

①에서는 어간 끝 자음으로 ㅎ이 홀로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 ㅎ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②에서는 어간 끝 자음으로 각각 ㄴㅎ과 ㄹㅎ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③에서는 어근으로서의 어간 끝 자음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에도 ㅎ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①은 다른 현상과 혼동할 만한 것이 없으나 ②, ③의 경우 ㅎ이 겹받침의 일부인 케이스가 있어 자칫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음군단순화와는 원인과 양상 및 결합 환경도 다르다. 다음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고 넘어가자.

	ㅎ 탈락 (②, ③)	자음군 단순화
결합 환경	어간 끝의 ㅎ + <u>모음 어미 또는 접사</u>	겹받침 + <u>자음</u> or 단어의 끝
사례	싫 + 어 [시리]	밝 + 다 [박따]
원인	<u>ㅎ</u> 의 음운적 특성	<u>우리말의 구조적 제약</u> (자음은 최대 2개까지만 연속 가능)
대조군 비교	다른 자음은 모음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탈락하지 않음(막+아[마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음(밝+아 [발가])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에서는 자음이 소리 날 수 있는데, 그 개수가 각각 하나씩만 가능하다. 즉 종성과 초성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연속적으로 소리 날 수 있는데, 형태소상으로 세 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경우, 실제로 발음될 때에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한 현상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이다.

②, ③의 ㅎ 탈락은 위의 자음군 단순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뒤에 모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음이 충분히 발음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아서[마나서]는 많+아서[만하서]라고도 발음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ㅎ이 탈락했으므로 이는 ㅎ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초성과 종성 자리를 의자로, 자음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의자가 두 개인데 사람이 세 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앉지 못했다면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의자가 부족한 구조가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의자가 두 개이고 사람도 두 사람인데 앉지 못하는(탈락)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3. ㄹ 탈락

용언 어간 끝의 자음 ㄴ, ㄹ,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① 살-니 → 사니 살-냐 → 사냐 살-ㄴ → 산
 ㄹ-니 → ∅니 ㄹ-냐 → ∅냐 ㄹ-ㄴ → ∅ㄴ
- ② 살-ㄹ → 살 살-ㄹ수록 → 살수록
 ㄹ-ㄹ → ∅ㄹ ㄹ-ㄹ수록 → ∅ㄹ수록
- ③ 살-ㅂ니다 → 삽니다
 ㄹ-ㅂ니다 → ∅ㅂ니다
- ④ 살-시-오 → 사시오
 ㄹ-시-오 → ∅시오

위와 유사하게 단어가 합성 및 파생될 때 어근 끝의 ㄹ이 종종 탈락하기도 한다.

- ① 활+살 → 화살 말+소 → 마소 딸-님 → 따님
 ㄹ+살 → ∅살 ㄹ+소 → ∅소 ㄹ-님 → ∅님

ㄹ탈락은 자음군 단순화나 ㅎ탈락과 달리 표기에 음운변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음운 변동은 표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발음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ㄹ탈락과 ㄴ탈락, ㅈ/ㅊ탈락은 표기에 이미 이러한 변동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저 이런 변동이 있다고만 알아 두자.

4. ㅡ 탈락

일반적으로 용언 어간 끝의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 ① 쓰-어 → 써 담그-아 → 담가 슬프-어 → 슬퍼
 쓰ㄹ-어 → 쓰∅어 ㄱㄹ-아 → ㄱ∅아 ㅍㄹ-어 → ㅍ∅어
- ② 부르-어 → 불러 자르-아 → 잘라
 ㄹㄹ-어 → ㄹㄹ어 ㄹㄹ-아 → ㄹㄹ아

ㅡ탈락은 ㅡ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대부분이 겪는 현상이다. ㅡ가 탈락하고 나면 ㅡ 앞에 있던 자음이 뒤의 어미와 결합하여 써, 가, 퍼와 같이 표기된다(①). 그러나 몇몇 용언은 이러한 규칙에서 어긋나 ②와 같이 불규칙한 활용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이는 활용형을 통틀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②와 같은 사례를 ‘ㄹ-불규칙’이라 한다(즉, ②는 ㅡ탈락의 사례가 아님). 불규칙 용언은 단어-품사 단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5. ㅏ/ㅑ 탈락

용언 어간이 ㅏ나 ㅑ로 끝나는 경우, 각각 ㅏ와 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ㅏ/ㅑ가 탈락한다.

- ① 가-아 → 가 자-아라 → 자라
 ㄱ㉔-ㅏ → ㄱ∅ㅏ ㅈ㉔-ㅏ라 → ㅈ∅ㅏ라
- ② 선-어 → 서 건너-어라 → 건너라
 ㅅ㉔-ㅑ → ㅅ∅ㅑ ㄱㄴ㉔-ㅑ라 → ㄱㄴ∅ㅑ라

※ 참고

수능에서 음운 변동으로서 주로 다루는 탈락 현상은 정해져 있는데, 1, 2번에 해당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ㅎ탈락이다. 이 두 현상의 경우 표기에 그 탈락 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문자상으로 음운 변동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기 → 탈락 → [발음])

반면 3~5에 해당하는 탈락 현상은 그 변동이 이미 표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소 결합 단계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탈락 → 표기 → [발음])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표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발음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출제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탈락 현상은 자음군단순화와 ㅎ탈락이 매우 중요하다.** 음운 변동 복합 문제에서는 이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두 현상의 원인과 결과, 차이점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으면 한다.

6. 반모음 탈락

ㅈ, ㅊ 뒤에 결합한 y(j)계 이중 모음은 발음될 때 반모음 y(j)가 탈락하여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ㅊ ㅋ ㆁ 과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저[가저] 찌어 → 찌[찌] 다치어 → 다쳐[다치]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남을 교체 파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ㅣ로 끝나는 어간 중에서도 ‘지, 찌, 처’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 표기상으로는 ‘저, 찌, 처’로 표기하더라도 실제 발음은 [저, 찌, 처]와 같이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으로만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구개음의 조음 위치가 반모음 y(j)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경구개음 뒤에서 연이어 발음되는 반모음 y(j)는 실제 발음에서 변별되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발음법에서는 y(j)가 탈락한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다.